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 탈피 칼 빼들었다

감사실 전담직원 배치·인허가 투명화·대화내용 녹음 등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기강 확립해 행정 신뢰성 높이기로

박홍률 목포시장이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 탈피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의 고객에 대한 상시 피드백 제도를 도입하고, 이른바 소비자(목포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목포시)의 신뢰를 높이는 '상생경영' 방식을 시정에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광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목포시 행정에 '피드백(feedback)'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박 시장은 실천행정 1단계로 대기업 인사 초청 특별 교육 및 대기업 벤치마킹을 추진하며, 2단계로 감사실 전담직원 배치와 대화내용 녹음, 자료 축적 평가근거 활용, 추진 성과 피드백 인사 고과 반영 등이 나온다. 또 마지막 3단계로 비건부회의 개최를 통한 행정 효율

성 제고 등 단계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놴다.

박 시장이 이례적으로 신년 벽두부터 발빠른 실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규모 정기인사(승진 대상 4급 2명·5급 9명)를 앞두고 있는데 4월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공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또 목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인·허가 사업, 민원 등을 대상으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서 바로 만족도를 평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완성도 높은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대기업 벤치마킹은 물론 대기

업 임직원을 목포시로 초청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 간부들과 하위직 직원들간 피드백도 수시로 나누도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는 게 박 시장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나 인·허가 사항은 감사실, 민원은 시민소통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피드백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근거자료를 축적하는 등 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인사 고과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간부중심의 시정 결정방식을 깨고 비건부 회의 등을 통해 하위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시장은 "권위의 상징인 간부회의가 끝나면 국장·과장 등 두 단계를 거쳐 일부 변형된 내용만을 듣게 돼 결국 '복도 통

신',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면서 "앞으로 계급장을 떼 '비건 부회의'를 통해 하위직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피드백을 확립시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전향적 조치에 대해 시청 안팎에서도 신선히다는 등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외부 청렴도와 수익계약 비율을 연계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왜곡시켜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시 홈페이지에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이를 더 확대시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공영주차장 대폭 확대 올해 146면 추가 조성

목포시가 올 한해 공영주차장 146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목포시는 10일 "총 사업비 29억 9600만원(보상비 21억9600만원, 공사비 8억원)을 들여 버스터미널 옆, 하당 놀부정 주변, 고하대로 차관주택 주변 등 3곳에 면적 5112㎡에 146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인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은 총 64면으로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시외버스를 이용해 목포에서 광주 등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당 기동병원 일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놀부정 주변에 조성될 주차장은 총 52면 규모로,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 오는 5월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타가인 차관 주택 주변은 평소 양면 주차가 심해 상습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으로 총 30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목포 제2의 평화광장'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북항 놀음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목포 해경안전서 주변 9922㎡에 조성될 주차장은 총 337면 규모로 지난해 11월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보건소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보건소 출산 장려 솔선수범 돋보이네

두달새 직원 6명 임신 '경사'

목포시 보건소가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성공한 가운데 최근 보건소 직원들도 연이어 임신해 곁경사를 맞고 있다.

10일 목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이 임신했다. 이들 중 나모씨는 난임으로 5년 넘게 임신이 안 돼 출산 포기 상태까지 갔으나 이번에 임신을 해 동료 직원들의 축하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한 단순한 예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하나로 합심해 솔선수범한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보건소측의 설명이다.

실제 목포시 보건소는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총 289명에게 지원한 결과, 54명이 출산에 성공했다.

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 이상 200만원 등 출산 축하금

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姆 가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산부 임신제·출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姆 영양관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출산을 장려해 오고 있다.

김연다 목포시 보건소장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는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목포에서는 누구나 아이를 많이 낳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출산·육아 돌기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출신 개그우먼 박나래씨 평화의 소녀상 홍보대사 위촉

목포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구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의 굴욕적 외교행태를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서 추진위는 "평화 비는 그 어떤 합의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치는 수요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라며 건립 강령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4일 목포 출신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목포 평화의 소녀상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시민 공감 도시 브랜드 개발키로

2월까지 아이디어 공모

목포시가 전남 제1의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목포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목포시는 10일 "브랜드 슬로건에서 디자인개발, 상품화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돼 1단계 브랜드 슬로건 개발→2단계 브랜드 디자인 개발→3단계 브랜드 상품화 등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 브랜드인 '해맑은 목포'는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2009년 슬로건을 확정 이후 2012년 상표 등록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맑은 목포'는 목포시 안팎에서 독창성·상징성·정체성이 부족하고 목포 도시브랜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까지 시민·공

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3월 중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조정위원회나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디자인 관련 전문 업체와 협의 후 2017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슬로건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 등록도 마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 브랜딩은 국내 유명도시들이 갖게 된 로고나 상징물 이상으로, 도시 고유의 특징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민선 6기 목포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이 개발되면 목포 브랜드를 활용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브랜드와 관련된 각종 행사도 개최해 목포시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상의 '중소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2016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턴 참여 대상은 만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인턴참여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10%인 139만원 이상의 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며, 직종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300만원부터, 그 외 직종은 180만

원까지 급여와 별도로 '취업지원금'을 차등 분할 지급받게 된다. 인턴참여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60만원씩 3개월간 180만원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9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올해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의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06:30~
08:20~11:30	07:30~08:30
11:30~12:00	08:30~12:30
12:00~13:00	12:30~13:00
13:00~17:30	13:00~16:30
17:30~19:00	16:30~
19:00~21:00	
22:00~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

06:30~ 기상 / 세면

07:30~08:30 즐거운 아침식사

08:30~12:30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12:30~13:00 장비반납 / 점심식사

13:00~16:30 인턴 점검 후 출발

16:30~ 귀가